

大氣오염과 나무심기

성기수(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

매일경제 93.1.16 『매경춘추』

서울의 大氣오염의 심각도가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뉴스가 최근에 전해졌다. 1천만명이 발생시키는 자동차 연기와 굴뚝 연기가 주범이다. 자동차 대수가 2백만대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서울市民과 관계당국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앞으로 서울의 공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영국 런던에서와 같은 대참사로 수천명이 질식하는 사태가 서울에서도 조만간 발생할 것이고 그때에 가서야 대기오염과 문제가 모든 사람의 제1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명하다면 이같은 人類의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스모그현상으로 악명 높던 LA市에서는 이미 디젤油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각종 권장 내지 의무규정으로 電氣자동차의 보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연의 발생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서울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權力의 地方분산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地方自治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市長군수의 직선제가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미 발생된 매연은 화학적으로 상쇄해서 줄이는 것, 즉 나무를 많이 심어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내는 일 또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山林 파괴로 지금 브라질과 미국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40년전 벌거벗었던 산에 山林 녹화를 성공시킨 모범국가이다. 人口증가 억제에 성공한 것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지난번 리우 환경회의 때 이 점을 좀더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즉 한국은, 서울의 공기는 현재 좋지 않지만, 지구온실화의 원흉인 CO₂를 없애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해 산림녹화에 있어서는 1등 先進國인 것이다.

길게 볼 때 나무를 심는 일은 生命을 가꾸는 것이고, 나무를 베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점에서 시립공원 국립공원은 많을수록 좋고, 골프장 건설은 나쁜 일이며,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지각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통일후 휴전선 일대를 Bio-dope, 즉 生命의 聖域으로 보존한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